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세계시장 정복할 것”

‘스칼라스에이드’ 전세계 석학들 격찬 이어져 … 패키지 제품 출시로 시장공략 본격화

한국인이 만들고 전세계 석학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논문이나 학술자료 등을 자주 작성해야 하는 교수, 연구원,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에게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로 인정받고 있는 ‘스칼라스에이드’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전세계 88개국에서 3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각주나 레퍼런스(인용 문구 및 출처)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200여 도서관의 서지자료와 원문을 손쉽게 입수하고, DB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얼마전 ‘스칼라스에이드4 한글판 패키지’ 버전을 발표한 나도영 스칼라스에이드 사장을 만났다.

취재 신중훈 기자 / 사진 이해성 기자



“전세계 석학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스칼라스에이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현재 세계 88개국에서 30만명이 스칼라스에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유사 경쟁제품에서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가장 짧은 기간에 이룩한 성과입니다.”

나도영 사장이 ‘스칼라스에이드’를 만들게 된 것은 순전히

그 자신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벤처기업의 CEO들은 대부분 다양한 이력들을 갖고 있지만, 나도영 사장은 그 중에서도 특이하다. 중앙대학교를 졸업한 프로그래머 출신인 그는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로 새 출발을 했다. 그리고 불혹에 가까운 나이에 다시 벤처기업의 CEO로 나선 것이다.

“스칼라스에이드를 처음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6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논문을 쓸 때 주석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기존의 비블리오그래피컬 SW는 저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97년 1.0 버전이 나왔을 때는 저와 제 주위의 몇 명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그들은 저에게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나 사장은 당시 이미 20년의 경력을 가진 프로그래머였다. 프로그램 개발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학자였기 때문에 학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1998년 스칼라스에이드의 2.5 버전이 개발됐고, 그는 이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에 수백 명이 사이트를 찾아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다. 2000년에 ‘스칼라스에이드 2000’이 개발되자 전세계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개발자로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전세계인들



New Version **4** 한글판
스칼라스에이드
레퍼런스 프로세서

지금 시험해 보세요.
30일간 무료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그에게 감사한다는 사실은 최고의 선물 이 아닐 수 없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프로그램 '찬사'

스칼라스에이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하기에 앞서 이 프로그램에 쏟아지는 세계로부터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프로그램은 내가 사용했던 최고의 프로그램이다."(Alex, 메르세데스 벤츠 핫라인 컴퓨터 주임, 독일)
-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비싼 프로그램보다 더 낫다. 만든 사람 역시 학자이다. 드디어 학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나왔다."(CNet User Opinion)
- "스칼라스에이드를 가지고 나는 인용, 각주, 서지목록, 완전한 카타로그 등을 완벽하게 구성했다. 검색에서 손쉽게 했다. 시간도 절약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나의 논제 위원회에게 보일 것이다."(M. at Antioch University)
- "이 프로그램은 신의 선물이다."(John, U.S.A.)

단순한 유저 인터페이스 제공

스칼라스에이드의 기본개념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이 프로그램은 서지자료 관리자인 Library, 노트/정보자료 관리자인 Notes, 데이터 프로바이더인 Data Retriever로 구성돼 있다.

이 프로그램이 여타의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인용본문과 그 출처를 함께 저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자들이 언제나 인용과 그것의 원천인 출처를 함께 저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제품은 유례없는 방법으로 그러한 작업들을 자동화 해준다. 스칼라스에이드의 노트 모듈에 원천의 기록문들을 저장해 두면, 그 중 인용할 부분을 선택해 이동(Transfer)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선택된 인용문을 워드 프로세스 문서로 옮기고, 동시에 사용자에 의해 결정된 형식(각주, 주, 내주 등)으로 출처를 삽입한다.

또다른 스칼라스에이드의 특징은 전세계 도서관으로부터 원전 목록 자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원하는 자료의 주제명만 입력하면 전세계 200여개 이상의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자신의 PC에 쉽게 저장할 수도 있다.

나 사장은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이 쉽다는 점입니다. 필요없는 클릭이나 단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능한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저 인터페이스의 단순함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수십만 줄의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정확한 루틴들을 실행하기 위해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국내시장 개척 이제부터

스칼라스에이드의 한글판 버전은 지난 7월에서야 개발됐다. 한국인인 나도영 사장이 직접 개발했지만 당시 그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회사 설립 역시 미국에서 먼저였다.

국내에서도 영문판을 다운받아 사용해 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한글판을 개발했다.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패키지 제품도 출시됐다. 국내시장 개척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스칼라스에이드가 우선적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곳은 역시 대학교 쪽이다. 대학교에 대해서는 패키지 제품이 아닌 1년 단위의 사이트 라이선스 판매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미 동아대학교 등 2개 대학에서 시험판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문의를 하고 있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

시장전망은 밝은 편이다. 필요성에 비해 경쟁할만한 제품이 없기 때문이다. 또 비교적 진입장벽도 높은 편이다.

나 사장은 "미국, 유럽 등에서 많이 알려진 제품이기 때문에 아직 국내시장에서 매출을 기대하기보다는 알린다는 개념으로 영업을 할 생각입니다. 또 이러한 프로그램의 경우 직접 사용해본 사람의 추천을 통해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최종 목표는 세계시장 정복이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